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중년남성의 문화가치관, 성역할  
갈등,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와의 관계 분석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고태영

2021年 8月

중년남성의 문화가치관, 성역할 갈등,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와의 관계 분석

지도교수 서명석·엄소용

고태영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年 06月

고태영의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①

위 원 \_\_\_\_\_ ①

위 원 \_\_\_\_\_ ①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21年 06月

#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among Middle-aged Men's Cultural Values, Gender Role Conflict, and Help-Seeking Attitude toward Professional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Tae-Yung Ko

(Supervised by professor Myoung-Seok Seo and professor Soyong Eo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Education [Master of Psychotherapy]

2021. 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Myoung-Seok Seo, Prof. of Psychotherapy

.....  
.....  
(Name and signature)

.....  
Date

Thesis director, Soyong Eom, Prof. of Psychotherapy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차 례

국문초록 .....	iv
I. 서론 .....	0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01
2. 연구문제 .....	03
3. 용어의 정의 .....	04
II. 이론적 배경 .....	06
1. 중년남성 .....	06
1) 중년기 남성의 발달특성 .....	06
2) 중년기 분류 .....	08
2. 문화가치관 .....	09
3. 성역할 갈등 .....	11
1) 성 역할 .....	11
2) 남성 성역할 갈등 .....	12
4.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 .....	14
5. 변인들 간의 관계 .....	15
1)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와 성 역할 갈등 .....	15
2)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와 문화가치관 .....	16
3) 문화가치관과 성 역할 갈등 .....	17
III. 연구방법 .....	19
1. 연구 참여자 .....	19
2. 측정 도구 .....	19
1) 문화가치관 .....	19
2) 성 역할 갈등 .....	20

3)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 .....	21
3. 연구절차 .....	22
4. 분석방법 .....	22
IV. 연구결과 .....	23
1. 인구통계학적 분석 .....	23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집단 간 차이 분석 .....	24
3.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	27
1) 기술통계 분석 .....	27
2) 상관관계 분석 .....	28
3)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	30
V. 논의 및 제언 .....	31
1. 요약 및 논의 .....	31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	35
참고문헌 .....	37
부    록 .....	45
ABSTRACT .....	53

## 표 목 차

< 표 III-1 > 문화가치관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19
< 표 III-2 > 남성 성역할 갈등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20
< 표 III-3 >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 문항구성과 신뢰도.....	21
< 표 IV-1 >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3
< 표 IV-2 > 연령에 따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집단 간 차이 분석.....	25
< 표 IV-3 > 거주 지역에 따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집단 간 차이 분석	25
< 표 IV-4 > 학력에 따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집단 간 차이 분석.....	26
< 표 IV-5 > 직업에 따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집단 간 차이 분석.....	26
< 표 IV-6 > 월 평균소득에 따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집단 간 차이 분석	.....27
< 표 IV-7 > 기술 통계분석.....	28
< 표 IV-8 > 상관 관계분석.....	29

## 국 문 초 록

# 중년남성의 문화가치관, 성역할 갈등,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와의 관계 분석

## 고 태 영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 지도교수 서 명 석 · 엄 소 용

연구자는 중년남성들이 심리적불편감을 경험하면서도 심리 상담과 심리치료와 같은 정신건강서비스를 외면하는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탐색하고자 성역할 갈등, 문화가치관,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를 측정변인으로 선정하여 하위 요소들 간에 상관관계와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의 집단 간 차이를 연구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제주와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편의표본 방식에 의해 추출하였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12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동의한 120명의 자료를 수집하고 빈도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 상관관계 등의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남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전문적 상담 및 도움추구 태도에서 집단 간 차이는 직업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관공서, 유관기관에 재직하는 연구 참여자의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가 개인사업, 기타 직업을 가진 연구 참여자 보다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중년남성들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하위변인 중 개방성 요인과 문화가치관의 하위변인 중 수직집단 요인과 수평개인 요인이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셋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성역할 갈등의 하위요인 중에는 욕구가치와 감정억제가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넷째, 성역할 갈등 하위변인 중 성공·권력·경쟁요인은 문화가치관의 수직개인, 수직집단, 수평집단, 수평개인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기술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제언 하였다.

**주요어:** 중년남성, 문화가치관, 성역할 갈등,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발달은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이 전 생애를 포괄하는 접근법으로 연구하고 있어 인간은 생명의 시작에서부터 죽음까지 변화하는 발달단계를 거치면서 계속 성장한다고 볼 수 있다(정옥분, 2004). 중년기는 발달단계에서 청년기와 노년기의 중간 단계로 심리적 변화가 생기는 개별화과정이 일어나면서 양극적인 경향성(젊음과 늙음, 파괴성과 창조성, 남성성과 여성성, 애착과 분리)이 생겨난다(Levinson, 1978). 양극적인 경향성은 외부환경과의 접촉에서 촉발될 수도 있는데 직업, 대인관계, 사회적 역할에서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를 동시에 경험한다(박은선, 2014). 남성인 경우 내면적 욕구를 억제하며 직업적 성공에 집착하면서 중년에 이르러 성취감을 이루기도 하지만 내면의 빈곤함을 경험하기도 한다(Datan, 1982).

한국 중년남성들은 인간이 발달단계에서 겪는 일반적인 심리적 현상과 더불어 동양 문화권내에 존재하는 유교문화에 영향으로 성역할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환경에서 자라면서 사회화 되어왔다(성윤희, 정주리, 2019). 이러한 사회화 과정에서 남성들은 전통적인 남성다움을 강조하는 성역할로 인해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 O'Neil(1981)은 이런 현상을 성역할 갈등이라고 명하였다. 성역할 갈등은 전통적 성역할 문화에 익숙해질수록 심하게 경험하게 되는데, 양성평등이 확대되는 지금의 사회 분위기속에서 중년남성들은 심리적 압박을 느끼며 정체성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가족과 사회관계에서 역할에 대한 새로운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최태산, 박혜경, 2011). 가족관계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중년남성들이 겪는 내적갈등은 부부관계로 이어져 2000년대 이후 이혼 비중이 급증하는 연령층이 중년기로 나타나고 있다(김순숙, 2012). 이혼 후 상실감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영향을 받아 정신건강에 이롭지 못하다는 보고가 있다(한국노동패널조사, 2015). 성역할 갈등을 겪는 중년남성들은 사회관계 측면에서도 남성성에 대한 미숙한 행동으로 이어져 자신과 타인에게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성윤희, 정주리, 2019).

2019년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변사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 한 해 동안 13,367명

이 자살을 하였고 원인별 자살자 현황을 보면 정신건강 문제인 경우가 4,638명으로 34.7%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경찰청, 2019). 자살자 현황을 중년기에 초점을 맞춰보면, 중년남성이 중년여성에 비해 40대는 2.6배, 50대는 3.2배로 나타났다(통계청, 2019). 또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진 않지만 심리적 고통이 정신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2017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대한 성인 평생 유병률이 25.4%로 집계되었다.

연구자는 중년남성들이 자살과 정신질환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심리적 고통 속에서 심리상담 또는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외면하는 원인에 대해 가설을 수립하고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예전부터 대다수의 사람들은 심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가족, 친구, 지인에게 조언을 구하며 때론 역술인을 찾아가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도움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권석만, 2012). 신체에 질병이 생기면 조기에 치료적 개입을 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이듯이 정신질환 역시 조기 개입과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정신질환이 만성화에 이르게 되면 일생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정신건강에 대한 위기의식이 필요하다(Kessler, Chiu, Demler, & Walters, 2005). 하지만 2019년에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를 하는 비율은 40대가 3.9%, 50대가 2.7%에 불과했다.

이와 같이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을 Kurshner와 Sher(1991)는 서비스 갭(service gap)이라 명명했는데, 중년남성 집단이 서비스 갭(service gap)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집단 중 하나라는 보고가 있다(Nam, Choi, & Lee, 2015). 중년남성들에게 서비스 갭(service gap)이 생기는 현상을 선행연구에서 찾아보면 다양한 변인이 있다. 그 변인들 중 앞에서 기술한 성역할 갈등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으며(최효진, 2010; 안수정, 서영석 2017; 이민아, 2020), 여성보다 남성이 타인에게 도움을 추구하는데 소극적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성역할 갈등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송호근, 2013).

한국을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해 더 부정적이라고 알려져 있다(Bogart, 1998).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선행연구를 보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문화권에서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화적 차이라는 해석이 있다(유성경, 1998). 동양 문화권

에는 집단주의적 경향성으로 개인의 심리적 안녕보다 가족과 개인이 속한 집단 구성원들 전체의 조화를 중시하며 상호의존적 이어서 같은 정체성을 강요하고 개인이 집단 전체를 반영한다고 여긴다(최성진, 1993). 이런 이유로 집단 구성원중 개인이 심리적 고통을 은폐 하려는 의도가 강하다(Chen, 1993). 또한 집단주의적 경향성은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에 회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Gim, Atkinson, Whiteley, 1990). 군집분석 연구를 보면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국내 한국인들이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 보면 국내 한국인이 전문적인 도움추구에 더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Park, 2013). 이안나(2020)는 이러한 현상을 서구문화에 노출정도에 따라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한 개인이 문화적 가치관이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쳐 서구적인 문화를 접할수록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Tata & Leong, 1994). 이를 근거로 한국사회를 고찰해보면,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산업화를 겪으면서 이루어진 사회 다변화가 개인의 문화적 가치관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한규석, 신수진, 1999).

연구자는 앞서 기술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의 중년남성들의 문화적 가치관이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와 관계가 있는지 가설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문화 가치관과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국내 연구는 드물게 보고되어 왔으며, 한국인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보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 2. 연구문제

이 연구에 가설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중년남성의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
- 2) 중년남성의 문화가치관과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 3) 중년남성의 성역할 갈등과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 4) 중년남성의 문화가치관과 성역할 갈등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 3. 용어의 정의

#### 1) 중년남성

선행연구에서 직장남성에게 중년을 언제 인식하게 되는지를 조사 했는데 연구 참여자들은 주관적인 지각요소를 흰머리, 뱃살 등 ‘신체변화’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김경은 등, 2011). 중년기는 발달단계에서 청년기와 노년기의 중간 단계로 신체적·심리적 변화가 생기는데 수명의 연장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중년기를 정의하기는 어렵다(경상대학교 여성연구소, 2015). 중년기를 분류하는 대표적인 기준으로는 생활주기 기준(Borland, 1978), 생활연령 기준(김애순, 1993), 연령과 생활주기를 함께 고려하는 기준(김명자, 1989)이 있다. 연구자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연령에 따른 신체적 노화 등 생물학적 특징과 동시대를 경험했다는 공통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령만을 기준으로 40세에서 59세에 해당하는 남성을 중년남성으로 정의한다.

#### 2)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

개인이 심리적인 위기상황에 빠져서 지속적으로 심리적불편감을 경험할 때 정신건강전문가(정신과 전문의, 심리상담사, 심리치료사 등)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행동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로서 전문적 도움을 받는 행동에 대한 개인의 자세라고 정의했다(Ficher & Turner, 1970).

#### 3) 성 역할갈등

성역할이란 남성과 여성에게 각기 사회적으로 기대되고 요구되는 이상적인 역할과 행동을 말한다. 성역할 갈등은 인간이 사회화 과정에서 내면화한 성 역할 기대에 부합하려는 시도가 긴장, 억압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적 상태가 불러일으키는 현상이다(O'Neil, 1981).

#### 4) 문화가치관

문화와 가치관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단어로 학문적으로도 정의를 내리기 쉽지 않고 개념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연구자는 문화가치관(심경섭, 2014)이 이번 연구에 필요한 개인주의-집단주의 체계를 설명하기 위한 문화차원의 도구이며, 이는 비교문화심리학자들이 광범위한 여러 차원의 문화와 가치관을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체계로 분류하여 연구하고자 만든 분석틀이다(Trinadis, 1989, 1995).

## II. 이론적 배경

### 1. 중년남성

#### 1) 중년기 남성의 발달특성

발달이란 유기체가 수정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과정까지 패턴과 지속성이 있는 체계적인 변화를 말한다(David, Katherine, 2014). 이러한 변화는 인간이 성숙해가는 발달단계를 거치는데 중년기는 평균수명이 49세였던 1900년대에는 발달단계에서 연구의 대상이 아니었다(정옥분, 2008).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져 중년의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서 시작되었는데, 본격적인 중년기 연구는 Jung(1954)의 ‘중년의 위기’가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부터 이다(김경은 등, 2011). 이 시기부터 인간발달은 영아기 부터 청소년기에 이르면서 모든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전통적 발달이론에서 벗어나 성인기부터 겪는 정체나 퇴보의 시기에도 인간이 적응해 가는 방식까지 포함하게 되었다(박아청, 1995; 여태철, 2009).

중년남성은 중년기에 이르러 신체, 인지, 직업, 성격, 가족관계 등에 변화가 생긴다. 신체변화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자신이 늙고 있음을 지각하기 때문이다. 유전과 환경이 영향으로 개개인의 노화 속도는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피부에 탄력을 잃고 모발의 양이 줄어든다. 감각기관 중에 시각은 가장 뚜렷한 변화인데 노안은 흔히 겪는 증상이다. 인지능력은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기억력이 감퇴되면서도 문제해결능력은 절정에 달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직업적인 면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중년남성이 크게 영향을 받는데 직업에 대한 목표를 재설정하고 정년퇴직을 가늠해보는 시기가 되기도 한다(정옥분, 2008). 중년남성의 성격적 특성을 살펴보면, Jung(1954)은 중년기는 관심의 대상이 외부세계에서 개인의 내면의 세계로 옮겨가는 시기로 혼란과 위기가 있을 수 있음을 말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의 페르소나와 자기, 그리고 대극적 요소들의 통합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Levinson(1978)은 자아와 외부세계와의 사이에서 심한 갈등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하였다. 이런 발달적 위기를 ‘중년의 전환기’ 또는 ‘제2의 사춘기’라고 하였는데 전 인생주기에는 전환기가 있어 개별화

과정이 진행된다고 하였다. 중년의 개별화 과정에는 네 가지 과제가 있는데 ‘젊음과 늙음’, ‘파괴성과 창조성’, ‘남성성과 여성성’, ‘애착과 분리’이다. 겉으로 보면 같이 공존 할 수 없어 보이지만 자아 속에는 둘 다 존재하고 있고 양극적인 경향성의 네 가지 과제를 통합하는 시기를 남성의 중년전환기로 보았다. Erickson(1963)의 경우 중년기를 생산성과 침체성의 발달단계로 자신의 삶과 다음 세대에 기여하는데 의미를 찾지 못할 경우, 정체되고 침체된 삶을 살 가능성이 있는 시기로 보았다. 만약에 설정한 목표가 자신의 정체감에 적합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달을 경우 중년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중년남성들은 생산성과 침체성 사이의 균형감을 얻고, 타협하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감과 의무를 새로운 방식으로 충분히 끌어내는 것이 발달 과제라고 하였다. 중년남성은 가족관계에서 노부모를 모시는 자식역할, 청년기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역할, 부부관계의 남편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 또한 평균수명이 증가로 그만큼 기간도 증가하여 책임이 무겁다. 이 시기에 자식역할은 부모세대가 신체적 질병으로 고통을 경험하고 심리적으로도 자녀에게 의존적이어서 중년남성들은 자신의 삶의 계획과 의무감 사이에 갈등을 겪게 된다. 하지만 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거나 자식에 대한 부모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부모역할자로서 중년남성들은 청년기에 접어든 자녀들을 무책임하고 제멋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녀는 부모를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정옥분, 2008). 이런 현상을 꼬집어 젊은 세대들이 중년남성을 향해 ‘꼰대’, ‘라떼’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다(김범준, 2021). 부부관계에서 남편의 역할을 결혼만족도로 살펴보면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낮아졌다가 자녀들이 독립하면 조금씩 높아진다(정옥분, 2008). 하지만 최근까지 중년기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이혼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장은경과 최희정(2018)은 중년남성이 결혼을 유지하는 사람과 이혼한 중년 남성에게 정신건강을 비교했는데, 이혼한 중년남성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중년남성에 비해 정신건강이 좋지 않고, 가족관계의 만족도도 낮다고 하였다. 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중년남성은 자신의 삶이 다른 발달단계에 비해 가장 큰 성취를 이루고 만족을 얻게 되는 풍요로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재평가하고 다양한 역할을 통합해야 하는 위기의 시기이기도 하다(이민아, 2020).



## 2) 중년기 분류

청년기와 노년기의 중간 발달단계인 중년기를 학문적 용어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인간의 수명이 계속 연장되면서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경상대학교 여성연구소, 2015). 중년기 분류에도 학자마다 의견이 다양하여 시기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선행연구에서 중년기를 분류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가족생활주기로 기준을 세우는 방법, 둘째, 가족생활주기와 연령을 기준으로 세우는 방법, 셋째, 연령을 기준으로 세우는 방법이 그것이다(2003, 고기숙).

첫째, 가족생활주기로 기준을 세우는 방법은 연령자체가 아닌 생활사건이나 가족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구분한다(Borland, 1978). 이 기준은 막내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독립하는 시기를 말하는데, 미국이나 유럽의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한국의 상황에서는 이 방법을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한국에서는 막내자녀가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도 결혼 이전까지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또한 생활패턴이 다양하게 변화하여 가족생활주기로 인한 중년기 구분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2003, 고기숙).

둘째, 연령과 가족생활주기를 둘 다 기준으로 세우고 중년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연령은 40세-59세(또는 40세 - 60세)에 속하면서, 가족생활주기는 막내자녀가 중학교 이상에 재학 중인 경우로 한정하였다(김명자, 1989). 합리적인 방법임에도 가족생활주기가 포함되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생활패턴의 다양화로 적용이 어렵다(2003, 고기숙).

셋째, 중년기를 연령만으로 기준을 세우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개인의 연령만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하지만 신체노화 등 생물학적인 변화, 같은 시기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 했다는 동질성이 있다(2003, 고기숙). 하지만 연령에 따른 분류도 다양하여 시작이 언제이고 끝이 언제인지를 명확하게 할 수 없다. 폭 넓게 제시할 경우 시작을 35세에서 끝을 70세 사이로 하고 있다(김명자, 1998). 연구자는 이번 연구에서 중년남성의 분류를 같은 시기를 경험했다는 공통점을 살펴보면서 중년의 지속기간을 인간의 수명연장에 따라 넓게 설정하여 연령만을 기준으로 김남순(1986)이 제안한 40세 이상 59세 이하의 남성을 중년남성으로 연구에 적용하고자 한다.

## 2. 문화가치관

문화는 너무 광범위하고 학문적으로도 다양한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문화를 정의 하기는 매우 어렵다(한재희, 2006). 그러나 전반적으로 문화에는 집단적 삶의 양식, 가치, 그리고 인간의 창조적인 정신활동과 그 산물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정신활동과 그 산물은 사상으로 발전되며 공동체 안에서 일정한 기간 공유되고 세대를 거쳐 전수된다. 그 결과 같은 문화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정신이 담겨져 행동하는 암묵적 체계를 형성하게 된다(조궁호, 1996). 따라서 개인들의 상호작용은 문화를 생산하지만 그 개인은 소속된 집단의 문화적 특성에 반대로 영향을 받는 순환적 과정이 되풀이 된다.

이번 연구에서 정의하는 문화가치관은 개인의 문화성향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주의-집단주의를 말한다. 개인주의-집단주의 이론은 예전부터 문화차이를 이해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고 경험적 연구의 이론적 틀로써 자리 잡은 것은 Hofstede의 연구 이후이다. Hofstede는 66개국의 지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작업관련 가치조사를 실시하고 특성들을 네 가지 요인으로 구조화 하였다. 네 가지 요인은 권력과의 거리, 모호성의 회피, 개인주의, 남성적 가치선호의 강도이다. 권력과의 거리는 권력을 배분 하는데 있어서 불공평 하다고 생각되는 느낌을 말한다. 모호성의 회피는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강도이고, 개인주의는 자기와 자기가족만을 책임지려는 경향성 이다. 또한, 남성적 가치 선호는 자기주장, 돈 등을 선호하는 강도를 뜻한다. Hofstede는 66개국의 경제성장률 등 국가별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네 가지 요인점수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개인주의 점수가 낮을수록 낮은 경제 성장률 등 후진국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동양, 아프리카는 집단주의 경향성, 북미와 북유럽은 개인주의 경향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Hofstede, 1980). 이후 Hofstede(1991)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이론은 서양문화와 동양문화를 구분하는 지표로 사용되었다. 그 개념을 살펴보면, 개인주의는 개인과 그 개인의 직계가족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성향을 가지며 집단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이 우선시되고 개인 간의 유대감이 느슨한 사회로 집단 또는 공동체에 대해 정서적으로 독립된 상태라고 하였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요구 강도와 가족, 친족, 그리고 국가에 대한 의무의 수용정도를 의미한다. 집단주의는 개인주의에 상대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족, 친족, 그리고 국가에 대해 절대적으로 충성을 하며 그 집단 또는 공동

체의 보호를 받는다. 이는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개인은 집단 구성원의 일원이 되어 정서적으로도 의존하게 된다.

Triandis(1995)는 Hofstede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이론을 수렴하여 심리학적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Triandis는 ‘평등’과 ‘수직’의 차원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동양과 서양으로 분류되는 문화권 차이를 같은 문화권에 있지만 개인의 문화적 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누었다. 네 가지 차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평개인주의 성향이다. 수평개인주의 성향은 자신을 공동체의 구성원보다 독립적인 개인으로 인식하고 타인들과의 평등한 관계에서 자신이 선택한 대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수직개인주의 성향이다. 수직개인주의 성향은 독립적인 개인으로 자신을 타인과는 구별되는 존재로 생각하며, 타인보다 더 힘과 능력이 있다고 여기며 인정받기를 추구한다. 또한, 사회속의 경쟁을 자연스럽게 인식하여 성공지향적인 성향이 강하다. 셋째, 수평집단주의 성향이다. 수평집단주의 성향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목표와 규칙에 따라 행동을 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자신이 다르지 않다고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위계질서를 따지지 않고 지위와 성공에 집착하지 않는다. 넷째, 수직집단주의 성향이다. 수직집단주의 성향은 수평집단주의 성향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목표와 규칙을 강조한다. 하지만 상호관계에서 위계질서를 엄격히 내세우며 따르는 경향이 있다. Triandis의 이론으로 국가별 문화가치관을 분류해 보면 한국은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수직집단주의 성향이며, 이스라엘의 키부츠는 집단의 이익을 중시하면서도 평등한 관계를 강조하는 수평집단주의를 대표한다. 미국은 평등성을 강조하면서도 수직관계를 허용하는 수직개인주의 성향으로 분류되며, 스웨덴은 수평개인주의 성향의 사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Hofstede, 1991). 하지만 개인들이 문화가치관은 고정되어 있기 보다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쟁을 해야 하는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는 수직개인주의, 직장에서 자신의 역할은 수직집단주의,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교류방식은 수평개인주의, 군복무 시절 동기를 대할 때는 수평집단주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한규석, 1991).

### 3. 성 역할 갈등

#### 1) 성 역할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할 때 ‘성(sex)’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선천적으로 출생 때부터 구분된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성별(gender)’이다. 성별은 정신적인 면에서 남·여를 구분하여 사용되는데, 출생하면서 외부적 환경에 의해 학습되어진 후천적인 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이 속한 사회에 통용되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나타낼 때는 성 역할 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윤가현, 1999). 또한 성 역할은 인간의 존재방식을 의미하는데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본다면, 자신과 타인과의 분리에 초점을 두는 주도성과 타인과 관계에 초점을 두는 관계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도성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성성에 해당되고, 관계성이란 여성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남성성은 도구성, 과업 지향을 말하고, 여성성이란 표현성, 관계지향을 의미한다(Helgeson, 2012). 여기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개념은 사회적인 요인으로 남성과 여성에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특성을 의미한다(모운수, 2015).

O’Neil(1981)은 성 역할이란 사회에게 남성과 여성의 각각의 역할을 요구하여 행동하도록 하고 개인은 그 기대에 맞추고자 하는 이상적인 행동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성 역할은 자신의 성을 인식한 후 성차에 따라 발달과정에서 학습을 통해 내면화 한다(김희정, 1986). 학습을 통해 개인은 성 역할 사회화가 이뤄지는데 어떠한 활동을 해야 하고, 성격이나 외모도 어떠한지 한다는 속성을 규정하는 사회적 관념이다(이수연, 김인순, 김지현, 2011). 예를 들면, 남성은 씩씩하고 권위적이고 여성은 다정다감하고 순종적인 특성을 말한다. 이러한 성 역할 사회화는 고정관념이 되어 개인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고 가치관, 대인관계, 역할분담, 직업선택 등 모든 부분에 행동기준이 된다(황매향, 김연진, 이승구, 전방연, 2011). 그래서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성 역할 규범에 잘 부합된다면 스스로를 괜찮은 남성 또는 여성으로 판단할 수 있고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반면 자신의 행동이 성 역할 규범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심리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어 정체성이나 자존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수연 등, 2011).

## 2) 남성 성 역할 갈등

Pleck(1995)은 성 역할 긴장이론에서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성 역할에 따라 사는 것에 실패한 개인은 심리적인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때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성 역할에 따라 사는 것에 실패한다는 것은 남성이 가벼운 문제에 울음을 터트리거나 일자리를 얻지 못해 무능해질 때, 여성이 신체적으로 매력적이지 않거나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태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상적인 자기의 모습과 현실적인 자기의 모습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여 개인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Pleck은 사회화된 역기능적 특성이론에서 사회 속에서 개인들에게 전수되는 성 역할은 그 사회의 남성과 여성의 성격 특성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사회 안의 남성과 여성에게 심리적인 긴장감을 수반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런 특성으로는 남성 성 역할 안의 감정표현 억제를 들 수 있고, 여성 성 역할에서는 의존성을 들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남성, 여성으로서의 정신건강에 역기능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Helgeson, 2012).

Pleck은 남성에게 있어 특정 문화에서 성 역할 규범에 동화하도록 권장하고 강요하는 사회화 과정이 강조되며, 이러한 성 역할 사회화 과정이 남성에게 성 역할 긴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남성 성 역할 갈등의 원인을 세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첫째, 성 역할 불일치는 스스로에 대한 인식과 행동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성 역할과의 격차가 클 때 경험하게 되는 갈등이다. 둘째, 남성에게 주어지는 엄격한 성 역할 규범은 엄격한 잣대가 되어 때로는 지나치게 강한 처벌을 불러온다. 따라서 남성에게는 자신의 성 역할을 위반한다는 것이 작고 간단한 실수가 아닌 깊은 외상을 남길 수 있다. 셋째, 성 역할 역기능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습득된 남성 성 역할에 대한 기대 자체가 역기능적임을 의미한다(Pleck, 1995).

O'Neil(1981)은 성 역할 갈등을 사회화를 통해 개인이 내면화한 성 역할 기대치를 채우려는 시도가 긴장과 억압과 같은 역기능적인 심리상태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O'Neil은 성 역할 갈등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남성에게 있어서 여성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자신의 성 역할에 기대되는 방식에서 벗어난 행동에 대해 주위에 경멸과 조롱 같은 비난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모욕감과 사회적 압력을 경험하게 된다(Corbett, 2009). 이

때문에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더 과도하게 자신의 타고난 성에 맞는 역할을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남성은 사회화 과정에서 억압된 여성성과 지나치게 강요된 남성성이 심리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자신 내면의 여성성에 관련한 모순을 경험하면서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성 역할 갈등은 남성의 삶에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O'Neil, 1981, 2008).

남성과 여성이 감정을 경험하는 데는 성별 차이는 없다고 한다. 다만 표현을 하는데 차이가 존재 하는데, 남성은 여성에 비해 감정표현에 자유롭지 못하여 내재화하는 경향이 있다(Helgeson, 2012). 이는 남성과 여성이 경험하는 감정은 비슷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감정의 회상에 능숙하게 되고 감정의 표현에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다. 남성은 자신의 감정에 진솔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강요받은 성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성 성 역할 중에서 일과 성공, 권력의 지나친 추구는 심리적인 역기능을 불러올 수 있다(O'Neil, 2008).

한국 남성의 남자다움에 대한 집착,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소홀함, 무리한 성공 추구하고 같은 성 역할 갈등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 한국 남성들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적응이 느려 부부관계나 직장에서의 여성과의 관계에서 유연하지 못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지 못함은 심리적 역기능을 초래하여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다(이수연 등, 2012). 남성의 이상적인 성 역할에는 강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용감함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 공격성으로 나타내고 여성적인 부드러움을 피하는 특성이 있다. 남성들이 이러한 전통적인 성 역할을 추구하는 모습에는 삶이 힘들지만 인내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모습에서 고통을 잊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년기에 접어들면 성취보다는 잃어가는 것이 더 많이 생기게 된다. 한국사회에서 가장으로써 희생이 예전과 같이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서 자존감이 줄어든 현실은 다시 그동안 익숙해진 방식으로 남성성을 극대화 시키지만 심리적 고통은 삶을 더욱 위태롭게 한다(추세원, 2015). 선행연구를 보면 남성의 성 역할 갈등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느끼는 감정에 대한 표현을 억압하여 내면에 묶어두게 된다. 이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거나 여성스럽다는 공포감에 휩싸여 우울과 분노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hepard, 2002). 이와 관련하여 O'Neil(2008)은 성 역할 갈등과 우울증에 관한 27개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3개의 연구를 제외한 대

부분의 연구에서 성 역할 갈등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남성 성 역할의 부정적 측면인 성 역할 갈등은 심리적 고통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내면의 갈등이 고조되고 혼란스러움을 경험하는 중년기에 위기감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라 하겠다(이민아, 2020).

#### 4.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는 심리적 고통을 해결하고자 심리상담 또는 심리치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개인의 성향으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으로 구분 할 수 있다(Fisher & Turner, 1970). Ajzen의 행동이론에서는 태도가 의도를 거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했는데, 태도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의도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는 상담 및 심리치료와 같은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해 도움을 추구할지 회피할지에 대한 평소의 신념이며,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는 노력이나 시도를 얼마만큼 할 것인지에 대한 동기로서, 전문적 도움추구를 하고자 행동으로 옮긴다(Ajzen, 1991). 따라서 태도가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는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 대한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권순미, 1996).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음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심리적 불편감을 해결하는데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도이다. 심리치료사, 심리상담사, 정신과 전문의 등 정신건강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둘째,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는 타인에게 자신의 취약성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낙인에 대한 위험이 발생함으로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수용성에 달려있다. 셋째,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진행하는 정신건강전문가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방성이다. 넷째, 정신건강전문가에 대한 도움을 청했을 때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Fisher & Turner, 1970).

Kushner와 Sher(1991)는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접근요인과 회피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접근요인은 심리적 불편감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 상담이나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적 도움을 추구할 가능성

을 높이는 요인으로, 자기노출에 대한 유용성, 정서적 개방성, 심리적 불편함, 이전 상담 경험,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있다. 회피요인은 심리 상담이나 심리치료와 전문적 도움을 추구할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자기노출에 대한 위험성, 심리치료에 대한 두려움, 자기은폐, 낙인 등이 있다(신연희, 2004; Vogel & Wester, 2003).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는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없는 잠재적 내담자에게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가 있는지 예측하는데 유용하지만 개인이 위기상황에 닥쳤을 때 실제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을 보일 지는 예측할 수 없다(Fisher, 1995). 하지만 개인의 강한 태도는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행동을 예측하는데 효율적인 변인으로 사용될 수 있다(Ajzen, 2008).

## 5. 변인들 간의 관계

### 1)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와 성 역할 갈등

성 역할 갈등은 남성이 전문적 상담 및 도움추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까지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안수정, 2015). O'Neil(1986)은 성 역할 갈등과 도움추구 행동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서 남성의 감정억제는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 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싫어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는 남성들이 전문적인 도움 추구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남성들이 전통적으로 성공 또는 권력을 가지고 통제력을 추구하도록 사회화된 결과일 수 있다고 하였다. Nadler(1986)는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가 남성들이 사회화를 통해 학습된 자신의 가치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남성들은 전문적인 도움을 추구하는 것을 자신이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식하여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Warren, 1983).

이와 같이 성 역할 갈등이 남성의 전문적 도움추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는 국내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박준호(2008)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성 역할 갈등을 높게 겪는 사람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가 좋지 않다고 하였고, 사회적으로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안나(2020)의 전문적 도움추구 관련변인 메타분석에서도 성 역할 갈등이 부정적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성 역할 갈등이 간접적으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쳐 성 역할 갈등이 높을수록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안수정, 서영석, 2017).

O'Neil(1986)은 남성들이 성 역할 갈등을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연구적으로 개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성공·권력·경쟁, 감정억제, 남성 간 애정행동 억제, 일과 가족관계 간의 갈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문선과 김지현(2016)은 이를 토대로 구성요인별로 집단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연구 참여자 중 50%가 감정억제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앞서 기술한 감정억제가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에 방해되는 요소임을 고려할 때 한국남성들에게 있어서 감정 표현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남성들은 주변 사람들과 감정을 소통하는 데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감정표현이 소극적이다. 문제는 자기 자신이 욕구를 통제하기 힘든 술자리 등에서 숨겼던 감정이 과도하게 분출되면서 사건·사고로 변질된다는 것이다(이수연 등, 2012). 이와 같이 남성 성 역할 갈등은 전문적인 도움추구 태도는 사회문제까지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어 연구에 중요성이 더 해진다.

## 2)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와 문화가치관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 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시작으로 심리적 변인까지 확대되고 있다(성수진, 유순화, 2006). 하지만 전문적 도움추구를 예측하는 변인들이 설명하는 정도가 부족하여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Wester, 2003; 성수진, 유순화, 2006). 같은 맥락에서 비교 문화적 관점으로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초기 연구는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 되었다. 백인 상담자들이 동양계 미국인들이 조기에 심리 상담이 종결되는 원인에 관심을 두게 되면서 동일 문화권에서 소수민족을 위한 연구가 활성화 되었다(박연수, 2011). Casas(1984)는 민족 간 문화차이 연구를 바탕으로 좀 더 세밀하게 동일한 민족 내에서도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문화가치관이 다를 수 있음을 제시 하였다. 이는 한 개인의 문제를 자각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자신이 익숙한 문화권 내에서 형성된 가치관에 의해 반영된다는 점에서,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문화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다(유성경, 유정이, 2000).

미국 대학생들과 한국 대학생들의 문화가치관 하위요인으로 비교한 연구를 보면,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에 비해 전문적 상담 및 도움추구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개인-집단주의 경향성 보다 수직-수평적 경향성 차원인 것으로 보고하였다(Yoo, 1997). 국내연구를 보면,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전문적 도움추구에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참여 집단은 수평집단주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참여 집단은 수직집단주의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수직집단이 공동체내에서 지위구조와 불평등이 인정되기 때문에 심리 상담이나 심리치료자를 권위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전문적 도움추구를 회피한다고 설명하였다(김주미, 2002). 또한 유성경과 유정이(2000)는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수직개인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정신 병리로 낙인찍히는 것을 거부하여 전문적 도움추구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자신이 정신적인 문제로 전문적 도움을 추구한다는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개인-집단주의 경향성 보다 수직-수평주의 경향성이 전문적 도움을 추구 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주의 경향성이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Kim, Atkinson, & Whiteley, 1990)는 기존 연구와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국내 중년남성의 문화가치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 3) 문화가치관과 성 역할 갈등

한국인은 가족을 중심에 둔 집단주의 경향성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전통적으로 유교를 간직하고 있어 수직적 질서의 신분제가 유지될 수 있었고 가족 중심의 집단정서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한규석, 신수진, 1999; 이효재, 1994). 좀 더 살펴보면 가족은 제도로서 유교가 정착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였지만 가족의 구성원 중에 남성을 중심에 둔 가부장의 형태로 위계를 형성하고 가문의 역할을 강조한 이데올로기는 조선시대에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조혜정, 1985). 이는 위계질서를 강조하고 집단규범을 중시한 유교가 수직집단주의 문화가치관의 형성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심경섭, 2014). 같은 맥락에서 O'Neil(1981)은 여성들의 특징인 여성성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인격적 성장에

필요한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성들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여성적 특성을 두려워하고 억압하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성 역할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가부장 사회에 존재한다고 예측했다. 성윤희 등(2019)은 이를 근거로 연구한 결과 가부장 사회가 성차별적 인식에 영향을 주어 성 역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확인 하였다. 다시 말해 유교는 문화가치관, 성 역할 갈등에 영향을 주는 가장 상위 개념의 변인 역할을 했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사회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타율적인 근대화의 길로 들어섰고, 이후 6·25 전쟁을 거치면서 수십 년 동안 미국 등 서구문명의 영향으로 받았다. 그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가치관의 혼란 상태와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고 변화 가능성을 보여 왔다(한규석 등, 1999; 김경동, 2004). 한규석 등(1999)은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의 연구에서 수직집단주의에서 수평개인주의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물론, 젊은 층이 중심에 있고 학력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는 제한점은 있다. 또 다른 선행연구를 보면, 유교가치관은 수평개인주의보다는 수직집단주의와 상관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다만 문화가치관 네 가지 유형이 모두 상관이 있어 기본적으로 수직집단주의 가치관이 우세하지만, 기본적으로 유교가치관이 타인에 대한 존중과 자기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심경섭, 2014).

지금까지 기술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한국사회에서 문화가치관과 성역할 갈등 변인은 전통적인 유교의 영향을 받아왔고, 이후 서구의 문화가 유입되며 변천 과정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문화가치관이 수직집단주의에서 수평개인주의로 변화되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고(한규석 등, 1999), 이는 성 역할 갈등도 변화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연구자는 이번 연구에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개의 변인, 문화가치관과 성 역할 갈등과의 관계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중년남성들이 문화가치관의 하위요인 중 어떤 유형인지 탐색하고, 동시에 성 역할 갈등은 어떤 유형이 높을 것인지 예측함으로써 중년남성들이 심리상담 또는 심리치료에 대한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는 태도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함이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 참여자

연구자는 제주지역과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40세에서 59세의 중년남성 12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연구 동의서 및 설명서에 동의절차를 수락하지 않은 참여자 2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120명의 설문 결과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 2. 측정도구

##### 1) 문화가치관

문화가치관 척도는 Hofstede가 개발한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Individualism-Collectivism Scale; INDCOL)를 수렴한 Triandis가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수직차원과 평등성을 강조하는 수평 차원을 추가하여 개발된 척도이며, 김기범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문화가치관 척도는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는데, 타인과 구분되는 존재로 생각하는 수직적 개인주의, 공동체보다 독립적인 개인을 인식하는 수평적 개인주의, 공동체의 목표와 규칙에 따르며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수직적 집단주의, 공동체의 목표와 규칙을 따르지만 다른 구성원과 다르지 않음을 인식하는 수평적 집단주의로 되어있다. 각 하위요인별로 8문항씩 총 32문항으로 되어 있고, 7점 Likert 척도로 만들어졌다(심경섭, 2014). 이번 연구에서는 5점 Likert 척도로 변형하였다. 척도 영역별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문화가치를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뜻하게 된다. 이번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61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표 III-1> 과 같다.

<표 III-1> 문화가치관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alpha$
수직개인	2, 4, 6, 8, 12 18, 20, 24	8	.699
수평개인	10, 14, 22, 26, 28 29, 30, 32	8	.761
수직집단	3, 13, 16, 17, 23 25, 27, 31	8	.656
수평집단	1, 5, 7, 9, 11 15, 19, 21	8	.765
전체		32	.861

## 2) 성 역할 갈등

O'Neil 등(1986)이 개발한 성 역할 갈등 척도(Gender Role Conflict Scale)는 37개 문항과 4개의 하위척도, 성공·권력·경쟁 13개 문항, 감정억제 10문항, 남성 간 애정행동 억제 8문항, 일과 가족 관계간의 갈등 6문항으로 구성 되어있다. 하지만 김지현, 황매향, 유정이(2003)가 번역하고 타당화한 한국어 성 역할 갈등 척도(Korean Gender Role Conflict Scale: K-GRCS) 요인분석을 통해 원판 GRCS와는 달리 3개의 요인 구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GRCS 해석을 유보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이번 연구는 김지현 등(2003)이 번역하고 타당화한 K-GRCS를 사용하였다. K-GRCS 신뢰도 계수는 .85이고, 이번 연구에서는 .878로 나타났다. K-GRCS는 6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남성 성 역할 갈등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alpha$
성공·권력·경쟁	1, 5, 8, 12, 14, 18, 21, 23, 24, 28, 32, 34, 37	13	.844

	2, 3, 6, 7, 9, 10, 13, 15		
감정억제	16, 19, 20, 22, 25, 26	18	.826
	29, 30, 33, 35		
일과가족 간 갈등	4, 11, 17, 27	6	.775
관계 간 갈등	31, 36		
전체		37	.878

### 3)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

Fisher와 Turner(1970)는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ATSPPH(The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cale)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전문적 도움의 필요성 인정, 낙인수용, 개방성, 전문가에 대한 신뢰감, 4개 하위척도가 안정적이지 못해 정신병원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여 10개 문항으로 간소화 하였다(Fisher, Farina, 1995). 이번 연구에서 연구자는 원척도를 간소화하여 개발한 ATTSPPH-S(The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cale-Shorten)를 박준호(2008)가 역-번역 방법으로 변안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개의 문항 중에서 5문항이 역 채점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욕구-가치 하위요인에서 요인 간부하량 차이가 .10 미만으로 발생하여 4번 문항을 제외시켰다. 그 결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전체 신뢰도 계수는 .792이며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개방성	1, 2*, 3, 5, 6, 7	6(1)	.831
욕구와 가치	8*, 9*, 10*	3(3)	.620
전체		9(4)	.792

\*와 ()는 역 채점 문항과 개수임

### 3. 연구절차

이 연구는 연구자가 제주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2020년 12월 9일에 정규심사를 신청을 하였고 2020년 12월 31일에 승인을 얻어 진행한 것이다(과제번호: 2020-065). 표본 추출방법은 편의표본추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설문조사는 상황적 제한(예: COVID-19)으로 인하여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1년 1월 8일부터 2021년 1월 15일 까지 8일간 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을 상대로 비밀이 유지될 것을 고지하였으며, 연구 목적 및 연구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4. 분석방법

연구자는 이번 연구에서 중년남성의 성역할 갈등과 문화가치관이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SPSS(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중년남성들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성역할 갈등, 문화가치관,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의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넷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 간에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위해 일원배치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중년남성들이 성역할 갈등, 문화가치관,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 간에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인구통계학적 분석

이번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과 같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40세 이상 44세 이하, 50세 이상 54세 이하가 가장 많았고(각각 32.5%), 다음은 45세 이상 49세 이하(20.8%), 그리고 55세 이상 59세 이하(14.2%)의 순서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제주 지역(65%)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서울·경기·인천 지역(33.3%), 광주·전라도 지역(0.8%), 그리고 대전·충청도 지역(0.8%)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 재학·중퇴·졸업(49.2%)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전문대 재학·중퇴·졸업(25.8%), 고등학교 졸업 이하(15.8%), 그리고 대학원 재학·중퇴·졸업(9.2%)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개인사업(33.3%)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회사원(30.8%), 전문직(21.7%), 관공서 및 유관기관(8.3%), 그리고 건축업(0.8%), 학원 강사(0.8%), 종교인(0.8%)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을 나타내는 한 달 평균소득을 보면 500만원 이상(32.5%), 다음이 300만원 이상 400만 미만(20.8%),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19.2%),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18.3%), 그리고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7.5%), 100만원 미만(1.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40세~44세	39	32.5
	45세~49세	25	20.8
	50세~54세	39	32.5
	55세~59세	17	14.2
	합계	120	100.0
거주 지역	서울·경기·인천지역	40	33.3
	제주지역	78	65.0
	기타지역	2	1.6
	합계	120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9	15.8
	전문대 재학·중퇴·졸업	31	25.8
	대학 재학·중퇴·졸업	59	49.2
	대학원 재학·중퇴·졸업	11	9.2
	합계	120	100.0
직업	회사원	37	30.8
	관공서 및 유관기관	10	8.3
	전문직	26	21.7
	개인사업	40	33.3
	기타	7	5.83
	합계	120	100.0
한 달 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2	1.7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9	7.5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3	19.2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5	20.8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2	18.3
	500만원 이상	39	32.5
	합계	120	100.0

##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집단 간 차이 분석

중년남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차이에 대한 판별을 위해서 Duncan의 사후검증을 사용하였다.

### 1) 연령에 따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집단 간 차이 분석

중년남성의 연령에 따른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의 집단 간 차이는 <표 IV-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연령에 따라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

구 태도( $F=0.035$ ,  $p<0.99$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V-2> 연령에 따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집단 간 차이 분석

변인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수준	사후검증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40세~44세	39	3.38	.57	.035	.99	
	45세~49세	25	3.37	.55			
	50세~54세	39	3.41	.62			
	55세~59세	17	3.41	.42			

\* $p<.05$ , \*\* $p<.01$ , \*\*\* $p<.001$

### 2) 거주 지역에 따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집단 간 차이 분석

중년남성의 거주 지역에 따른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의 집단 간 차이는 <표 IV-3>에 제시한 바와 같다. 결과를 요약하면, 거주 지역에 따른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 $F=0.127$ ,  $p<0.881$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IV-3> 거주 지역에 따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집단 간 차이 분석

변인	거주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수준	사후검증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서울·경기·인천 지역	40	3.38	.65	.127	.881	
	제주지역	78	3.40	.52			
	기타지역	2	3.20	.28			

\* $p<.05$ , \*\* $p<.01$ , \*\*\* $p<.001$

### 3) 학력에 따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집단 간 차이 분석

중년남성의 학력에 따른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의 집단 간 차이는 <표 IV-4>에 제시한 바와 같다. 결과를 요약하면, 학력에 따라 전문적 상담 및 도움추구 태도( $F=0.476$ ,  $p<0.700$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IV-4> 학력에 따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집단 간 차이 분석

변인	학력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 수준	사후 검증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고등학교 졸업	19	3.42	.62	.476	.700	
	전문대 재학·중퇴·졸업	31	3.29	.52			
	대학 재학·중퇴·졸업	59	3.43	.52			
	대학원 재학·중퇴·졸업	11	3.40	.78			

\*p<.05, \*\*p<.01, \*\*\*p<.001

4) 직업에 따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집단 간 차이 분석

중년남성의 직업에 따른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의 차이는 <표 IV-5>에 제시한 바와 같다. 결과를 요약하면, 직업에 따라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031, p<0.02\*). 연구 참여자 가운데 관공서, 유관기관에 재직하는 참여자가 개인사업, 기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IV-5> 직업에 따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집단 간 차이 분석

변인	직업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 수준	사후 검증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회사원 <sup>a</sup>	37	3.51	0.59	3.031	.020*	b>d, e
	관공서 및 유관기관 <sup>b</sup>	10	3.62	0.48			
	전문직 <sup>c</sup>	26	3.51	0.56			
	개인사업 <sup>d</sup>	40	3.18	0.52			
	기타 <sup>e</sup>	7	3.17	0.34			

\*p<.05, \*\*p<.01, \*\*\*p<.001

5) 월 평균소득에 따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집단 간 차이 분석

중년남성의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의 집단 간 차이는 <표 IV-6>에 제시한 바와 같다. 결과를 요약하면, 월 평균소득에 따라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 $F=1.870, p<0.105$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IV-6> 월 평균소득에 따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집단 간 차이분석

변인	월 평균소득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수준	사후검증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100만원 미만	2	3.39	0.55	1.870	.105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9	3.40	0.36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3	3.45	0.56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5	3.60	0.40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2	3.77	0.26			
	500만원 이상	39	3.61	0.40			

\* $p<.05$ , \*\* $p<.01$ , \*\*\* $p<.001$

### 3.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 1) 기술통계 분석

이 연구의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는 <표 IV-7>과 같다. 주요변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문화가치관 평균이 3.59(표준편차=0.42)로 나타났고, 성역할 갈등이 2.99(표준편차=0.48)이며,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의 평균은 3.39(표준편차=0.56)로 나타났다.

<표 IV-7>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n=120)

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표준편차
문화가치관 전체	2.09	4.63	3.59±.42
수평집단	2.00	5.00	3.86±.55
수평개인	1.38	5.00	3.65±.57
수직집단	1.63	4.75	3.49±.56
수직개인	2.00	5.00	3.35±.58
성역할갈등 전체	1.68	4.14	2.99±.48
성공_권력_경쟁	1.36	5.00	3.09±.65
감정억제	1.38	4.25	2.80±.57
일_가족	1.33	4.83	3.06±.77
전문적 도움 전체	1.80	4.80	3.39±.56
개방성	1.33	5.00	3.64±.72
욕구_가치	1.00	4.50	3.02±.59

2) 상관관계 분석

이번 연구의 변인인 문화가치관, 성역할 갈등,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 표 IV-8 >과 같다.

<표 IV-8>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

구분		문화가치관				성역할 갈등			전문적 도움추구	
		수평집단	수평개인	수직집단	수직개인	성공/권력/경쟁	감정억제	일/가족	개방성	욕구/가치
문화 가치관	수평집단	1								
	수평개인	.239**	1							
	수직집단	.682**	.185*	1						
	수직개인	.505**	.262**	.592**	1					
성역할 갈등	성공/권력/경쟁	.351**	.222*	.492**	.694**	1				
	감정억제	-.099	-.129	.038	.156	.317**	1			
	일/가족	.143	-.052	.315**	.344**	.559**	.277**	1		
전문적 도움추구	개방성	.148	.183*	.186*	-.046	.002	-.023	-.003	1	
	욕구/가치	-.031	-.050	-.099	-.171	-.156	-.180*	-.164	.346**	1

\*p<.05, \*\*p<.01, \*\*\*p<.001

### 3)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면,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와 문화가치관의 하위변인 중에서 개방성 요인이 수직집단 요인과 정적 상관( $r=.186, p<.05$ )관계가 가장 높았고, 수평개인 요인이 그 다음으로 정적인 상관( $r=.183, p<.05$ )관계가 있었다. 나머지 하위변인들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와 성 역할 갈등의 하위요인 중에는 욕구가치와 감정억제가 부적상관( $r=-.180, p<.05$ )을 나타냈다. 다시 말해, 이는 중년남성들이 감정억제를 많이 할수록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신뢰감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나머지 하위변인들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문화가치관과 성 역할 갈등 하위변인의 상관관계를 보면, 성공·권력·경쟁 요인은 수직개인과 정적인 상관( $r=.694, p<.01$ )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순서대로 수직집단과 정적상관( $r=.492, p<.01$ )을 보이고 있고, 수평집단은 정적상관( $r=.351, p<.01$ ), 수평개인과 정적상관( $r=.222, p<.01$ )을 보였다. 또한, 일·가족 요인은 수직개인과 정적인 상관( $r=.344, p<.01$ )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수직집단이 정적인 상관( $r=.315, p<.01$ )이 있었다.

## V. 논의 및 제언

### 1. 요약 및 논의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중년남성들이 평소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이 개인과 사회에 부적응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년남성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위기 의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탐색을 목적으로 기획하였다. 특히 중년남성 집단이 서비스 갭(service gap) 현상에 대한 연구는 여성과 다른 연령층에 비해 연구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번 연구에서 중년남성이 심리 상담 또는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도움추구 태도와 문화가치관, 그리고 성역할 갈등 간 상관성의 탐색을 위해 관련 변인들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는 중년남성이 정신건강서비스에 걸림돌이 되는 본질을 파악하여 대안 책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남성의 연령, 거주 지역, 학력, 직업, 소득에 따른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의 집단 간 차이는 직업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나머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직업에 따른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의 집단 간 차이를 보면, 관공서, 유관기관에 재직하는 연구 참여자가 개인사업, 기타 보다 높게 나타났다. 관공서나 유관기관에 재직하는 사람은 공무원이나 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관공서나 유관기관은 조직문화가 비슷하며, 권력지향성, 관행중시, 계층 간의 서열중시, 의사결정 참여제한과 같은 권위주의 문화의 특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신형섭, 2002). 권위주의 문화는 개인적인 불평등 및 우열관계를 인정하여 서열에 따른 복종관계를 중시하고, 의사전달 과정이 일방적인 특성이 있다(주효진, 김옥일, 박광국, 2007). 이는 문화가치관 하위요인에 수직개인, 수직집단과 성격 특성이 유사하다. 대학생과 일반 성인을 참여자로 문화가치관과 상담에 대한 태도를 연구한 유성경 등(2000)은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쟁을 당연시하는 수직개인주의



가 높은 사람은 심리 상담이나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적인 도움추구를 가장 회피하는 집단이라는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 도움 추구태도와 의 관계에서도 수직개인주의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성수진, 유순화, 2006). 이는 연구 참여자가 대학생이나 일반 성인이 아닌 서비스 갭(service gap)이 가장 두드러진 중년남성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해석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반면에, 한규석 등(1999)이 한국인이 선호하는 가치관이 수직집단주의에서 수평개인주의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기술통계 분석<표 IV-2>에서 수평집단과 수평개인이 문화가치관 전체 평균보다 높고, 수직집단과 수직개인이 문화가치관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을 고려할 때, 연구 참여자의 문화가치관에 대한 선호도가 수평집단, 수평개인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조직문화가 수직개인 또는 수직집단 이지만 대다수 구성원들이 선호하는 문화가치관은 수평집단, 수평개인일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둘째, 중년남성의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의 하위변인 중 개방성 요인과 문화가치관의 하위변인 중 수직집단 요인과 수평개인 요인이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상반되는 요인들이 동시에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결과를 보여줬다. 이를 두 가지로 나누어 해석해 본다면, 한 가지는 수평개인이 개방성 요인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결과이다. 개방성은 정서적 문제로 인해 생기는 심리적 고통을 심리상담 또는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적 도움추구(Fisher, Farina, 1995)를 통해 해결하려는 동기로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접근요인으로 알려져 있다(Nam, S. K., Choi, S. I., Lee, J. H., Lee, M. K., Kim, A. R., & Lee, S. M., 2013; 이안나, 2020). 또한, 심리적 고통을 전문가를 통해 해결하고자 할 때, 자신이 숨겨놓은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심리 상담 및 심리치료의 시작단계에 중요한 부분이다(이안나, 2020).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평등하다는 가치관을 지닌 수평적 성향이 개인 간의 경쟁과 불평등을 예상하는 수직적 경향의 개인보다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더 관심을 갖는다고 예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수평개인과 수평집단이 전문적 상담 및 도움추구 태도와 상관관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이를 지지하고 있다(김주미, 유성경, 2002; 성수진, 유순화, 2006).

다른 한 가지는 수직집단 요인이 개방성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결과이다. 이

는 동양문화권 사람들은 집단주의적 성향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서구문화를 내면화한 개인주의적 성향이 상담 및 심리치료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보고와는 상치되는 결과이다(Atkinson, Gim & Whiteley, 1989, 1990; Tata & Leong, 1994; 이안나, 2020). 하지만 전문적 상담 및 도움추구 태도의 일부 요소인 전문가에 대한 신뢰는 집단주의적 성향이 있는 그룹이 정적상관이 있다는 연구를 일부 지지하는 결과(김주미, 유성경, 2002)이며 수직집단과 수평집단이 전문적 도움 추구하고 접근요인으로 나타난 연구와도 일부분 일치하는 결과이다(정미경, 2020). 이를 종합해보면, 개방성은 수평적 성향이 강할수록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와 일관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결과임을 확인하였고, 집단주의적 성향인 수직집단도 일부 연구와 같이 개방성과 관련이 있다고 시사된다.

셋째, 중년남성의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의 하위변인 중 욕구·가치와 성 역할 갈등의 하위요인 중 감정억제가 부적상관 관계를 보였다. 이는 중년남성들이 평소 감정억제를 많이 할수록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적 도움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번 연구의 결과도 성 역할 갈등이 높은 남성일수록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에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고 있다(황연미, 2009; 최효진, 2010; 제연화, 2014). 이 결과는 중년남성들이 오랫동안 지속된 성 역할 사회화로 남자다움에 대한 집착이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소홀함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수연 등, 2012). 결국 성 역할 갈등은 감정 억제를 불러 일으켜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나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에 걸림돌이 되는 부정적인 변인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중년남성들의 문화가치관을 측정하는 네 가지 하위변인과 성 역할 갈등의 하위변인 중 성공·권력·경쟁 요인이 모두 정적상관 관계로 나타났다. 성공·권력·경쟁 요인과 정적관계가 높은 순서를 보면 수직개인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수직집단, 수평집단, 수평개인 순으로 높았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성공·권력·경쟁에 대한 욕구가 모든 문화가치관 유형과 관련성 있고 강도의 차이만 존재 한다는 결과이다. 성공·권력·경쟁은 중년남성이 독립적이고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긍정에너지 자원일 수 있지만, 유연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수행은 정신건강에 심각한 부적응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하문선, 김지현, 2016). 이 차

원에서 문화가치관을 분석해보면 대인관계에서 서열을 바탕으로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수직개인과 수직집단은 평등성을 바탕으로 교류하는 수평집단과 수평개인보다 성 역할 갈등을 많이 경험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문선 등(2016)은 연구를 통해 성공·권력·경쟁이 높은 집단이 성역할의 남성성이 가장 높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남성성은 성취 지향적인 남성들이 특성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나약함의 표시로 여기며 성공을 하는데 방해 요소로 생각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을 말한다(Cournoyer & Mahalik, 1995). 그러므로 남성성이 지나치다는 것은 성 역할 갈등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문화가치관이 수직적 경향성(수직개인, 수직집단)이 높으면 성 역할 갈등 수준이 높고 수평적 경향성(수평집단, 수평개인)이 높으면 성 역할 갈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다섯째, 중년남성들의 성 역할 갈등 하위변인 중에서 일·가족 관계간의 갈등 요인이 문화가치관의 하위변인 중 수직개인, 수직집단 순서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중년남성들이 일과 가족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문화가치관이 수직적 성향(수직개인, 수직집단)이 높을수록 수평적 성향(수평개인, 수평집단)보다 성 역할 갈등을 많이 경험하는 상관관계로 볼 수 있다. 여기서 하위변인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일·가족 관계간의 갈등 요인은 일과 가족 관계의 균형이 깨지면 과로와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위협에 노출됨을 말한다. 수직개인, 수직집단의 공통성인 수직적 성향의 문화가치관은 수준이 높을수록 타인보다 힘과 능력이 있다고 여기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특성(Hofstede, 1991)이 있다. 또한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크게 느낀다. 이를 종합하면, 수직개인, 수직집단 문화가치관 수준이 높을수록 일과 가족 관계에서 갈등의 가능성이 높아져 정신적 고통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여섯째, 연구자는 중년남성들의 문화가치관과 전문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 태도의 관계를 문화가치관의 유형별 차이로 관심의 정도를 앞서 기술하였다. 하지만 박연수(2010)는 대학생 참여자로 문화가치관의 유형을 초월한 공통점으로 심리상담 또는 심리치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필요성을 자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자신의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관계적으로 친밀한 심리상담자 또는 치료자를 기대한다는 전제가 있다고 기술하였다.

이는 이영란(2019)의 다문화 상담자 역량모형 개발 연구에서도 강조되었는데,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성격 8가지 특성(이타심, 봉사정신, 성실성, 인내심, 통찰력, 공감능력, 포용력, 적극성) 중에서 공감능력이 가장 중요한 상담전문가의 능력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중년남성들의 네 가지 문화가치관 유형은 전문적인 도움을 추구하는 내담자의 성향으로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며, 중년남성을 상담하는 심리상담자 또는 치료자는 공감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이 연구의 의의는 중년남성들이 심리적 고통 속에서도 심리상담 또는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적인 도움추구를 외면하는 태도를 본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 역할 갈등의 하위변인과 문화가치관의 하위변인을 분석하여 성격이 다른 하위변인이 밀접한 관련성을 예측했다는 점이다. 문화가치관은 네 가지 다른 성격의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성공·권력·경쟁 요인과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성취지향적인 특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실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적인 임상장면에서는, 다양한 문화가치관을 초월하는 중년남성들의 성취지향적인 지배적 성향과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특성에 대한 고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실제 상담 및 치료 등의 임상 장면에서는, 대상자인 남편뿐 아니라 남편과 부인을 모두 대상으로 포함하는 부부상담 등의 치료적 접근과 계획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중년남성들의 특성을 고려한 중년남성 대상 심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이러한 근거를 기반 한 결과들을 반영하여 기획하고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중년남성들이 선호하는 문화가치관이 수직적 경향성에서 수평적 경향성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양가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공익차원에서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데 기여 가능한 요인들로서,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공무원 또는 그와 유사한 직종에 근무하는 중년남성들이 심리 상담과 심리치료에 대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가 다른 직업에 종사자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직업특성에 따른 조직문화로 개인의 문화가치관을 추정하는 것은 선부른 판단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넷째,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연구 참여자가 중년남성인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중년남성들이 심리적 어려움이 개인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최근에 흐름을 파악하고, 근거-기반 한 실제 임상적인 의의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인원과 지역에 제한이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제한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대표성 있는 표집방식이 필요하며 광범위한 연구 참여자의 확대를 통한 연구의 반복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연구자는 생각한다.

둘째, 이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 응답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어 사회적인 바람직성을 지향하는 태도가 응답 성향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과 함께,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이나 태도, 그리고 실제 행동 간의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결과 해석에 한계가 있음이 고려된다. 또한, 이러한 설문조사 연구의 취약성의 보완을 위해서는, 타당도 평가가 가능한 평가 영역의 추가나 타자의 행동관찰 척도 등의 시행을 고려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연구자는 생각한다.

셋째,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에는 태도, 의도, 행동으로 나누어진 다. 하지만 본 연구는 도움을 구하는 행동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의 본질적 의미인 태도만을 연구하였다. 그러므로 전문적 상담 및 도움을 추구하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 전문적 도움추구의 의도와 관련한 변인들을 포함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연구자는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경상대학교 여성연구소 (2015). 한국의 중년 여성과 남성. 고양: 서현사.
- 경찰청 (2019). 경찰통계연보. 제63호.
- 고기숙 (2003).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위기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곽삼근, 조혜선, 윤희경(2005). 생애주기별 성역할 발달 및 갈등. 한국여성학, 21(2), 147-179.
- 권석만 (2012). 현대 심리치료와 상담이론. 서울: 학지사.
- 권순미 (1996). 문제의 원인소재, 변화가능성지각 및 사회적 지지수용도가 심리전문기관에 대한 도움추구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김경동 (2004).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회의식(상): 변화의 경험적 추적. 서울: 한국학술정보.
- 김경은, 곽금주, 민하영, 최지영, 진숙영 (2011). 한국 직장남성의 중년에 대한 인식. 인간발달연구, 18(3), 135-155.
- 김기범 (1996). 대인관계 속에서의 도덕성과 내집단-외집단 구별: 문화 비교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김남순 (1986). 한국 중년 남녀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명자 (1989). 중년기 연구. 서울: 교문사.
- 김명자 (1998). 중년기 발달. 서울: 교문사.
- 김범준 (2021 .03. 04). 김범준의 옆집물리학 ‘꼰대’.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
- 김순숙 (2012). 중년기 기혼 남녀의 자기분화, 자아 존중감, 갈등해결전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애순 (1993). 중년기 위기감 (3): 개방성향과 직업, 결혼, 자녀관계가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3(2), 1-14.

- 김주미, 유성경 (2002).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문화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91-1002.
- 김지현, 황매향, 유정이 (2003). 한국어 성역할 갈등 척도(Korean Gender Role Conflict Scale: K-GRCS) 타당화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4(3), 25-41.
- 김하영 (2017).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군집 탐색 연구: 자기은폐, 체면손상, 심리적 불편감, 상담관련 경험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 김희정 (1986). 유아와 유치원 교사의 색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모윤수 (2015). 중년남성의 성역할 갈등과 중년기 정서적 위기감의 관계에서 친밀감 두려움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박광국, 주효진, 김옥일 (2007). 조직문화 진단과 변화관리.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507-526.
- 박아청 (1995). 아이덴티티의 탐색.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박연수 (2011). 내담자의 문화성향에 따른 자기개방 과정연구.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 박은선 (2014). 중년 남성의 나이 들에 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준호 (2008). 남자 대학생들의 성 역할 갈등과 상담 의도와의 관계: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 상담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보건복지부 (2016).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
- 성수진, 유순화. (2006). 개인주의-집단주의 및 귀인양식이 대학생의 전문적 도움 추구태도에 미치는 영향. 교사교육연구, 45, 1-15.
- 성윤희, 정주리(2019).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남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차별적 인식과 남성 성역할 갈등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20(2), 547-567.
- 송호근 (2013). 그들은 소리 내 울지 않는다. 서울: 이와우.
- 신연희 (2004).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서 접근요인과 회피요인의 상대적 중요성 고찰.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신형섭 (2002). 호텔 조직문화유형이 조직구조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호텔구성원 지각에 관한 연구. *외식경영연구*, 5(3), 23-42.
- 심경섭 (2014). 유교가치관 척도 타당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안수정, 서영석 (2017). 중년 남성의 전문적 도움추구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629-657.
- 안수정 (2015). 중년 남성의 전문적 도움 추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여태철 (2009). 전생애발달이론에 기초한 초등교사의 가르침의 동기탐색.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논총*, 29(특집호), 519-544.
- 유성경, 유정이 (2000). 집단주의 - 개인주의 성향과 상담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9-32.
- 유성경 (1998). 우울의 표현 및 상담에 대한 태도에 관한 문화간 비교연구. *청소년상담연구*, 6, 93-114.
- 윤가현 (1999). *성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이민아 (2020). 한국 중년남성의 성역할갈등과 중년 위기감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과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및 연령대의 조절효과 검증.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수연, 김인순, 김지현(2011).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1, 62-78.
- 이수연, 김인순, 김지현, 김진아 (2012).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여성연구*, 82, 5-33.
- 이영란 (2019). 다문화상담자 역량모형 개발.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안나 (2020). 전문적 심리상담 도움추구 태도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이효재 (1994). *이테올로기와 가족. 현대가족과 사회*, 교육과학사.
- 장은경, 최희정 (2018). 이혼이 중·노년 남녀의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18.11: 161-172.
- 장은경 (2018). 이혼이 중·노년 남녀의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정미경 (2020). 소방공무원의 남성성역할갈등 및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광주대학교 보건상담정책대학원.
- 정옥분 (2004).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옥분 (2008). 성인·노인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제연화 (2014). 남성 성역할갈등과 자살성의 관계: 우울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역할.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조공호 (1996). 문화유형과 타인이해 양상의 차이. 한국임상심리학회지, 15.1, 104-139.
- 조혜정 (1985).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족주의. 한국문화인류학, 17, 79-96.
- 진경미, 권경인 (2015). 기업체 종사자의 전문적 상담 추구 의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1, 109-128.
- 질병관리청(2019). 국민건강영양조사.
- 최상진 (1993). 한국인과 일본인의 우리 의식 비교.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제1호, 229-244.
- 최상진 (1993). 한국인의 심정심리학. 한국심리학회, 3, 3-21.
- 최태산, 박혜경(2011). 중년남성이 지각한 자기의식과 성역할 스트레스가 중년의 위기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2(3), 931-944.
- 최효진 (2010). 중년 남성들의 성역할 갈등과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과의 관계. 국내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추세원 (2015). 중년남성의 성역할갈등과 심리적 불편감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통계청 (2019). 사망원인 통계 결과.
- 하문선, 김지현 (2016). 남성 성역할갈등의 잠재집단과 남성성, 여성성, 우울, 자아존중감의 관계. 상담학연구, 17(5), 47-64.
- 한국노동패널조사 (2015). 전반적 생활스트레스 조사.
- 한규석 (1991).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의 현황과 그 전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 10(1), 1-19.
- 한규석, 신수진 (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 한재희 (2006). 상담패러다임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아카데미.
- 한재희 (2010). 한국적 다문화 상담. 서울: 학지사.
- 황매향, 김연진, 이승구, 전방연 (2011). 진로탐색과 생애설계: 꿈을 찾아가는 포트폴리오 (2판). 서울: 학지사.
- 황연미 (2009). 남자 대학생의 성역할과 전문적 도움 추구와의 관계에서 자기낙인과 자기공개 기대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 - 211.
- Ajzen, I. (2008). Consumer attitudes and behavior. In C. P. Haugtvedt, P. M. Herr, & F. R. Kardes (Eds.), *Marketing and consumer psychology series: Vol. 4. Handbook of consumer psychology* (pp. 525-548). Taylor & Francis Group/Lawrence Erlbaum Associates.
- Atkinson, D. R., & Gim, R. H. (1989). Asian-American cultural identity and attitudes toward mental health servic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663-668.
- Atkinson, D. R., Gim, R. H., & Whiteley, S. (1990). Asian-American acculturation, severity of concerns, and willingness to see a counsel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281-285.
- Bogart, L. M. (1998). The relationship of stereotypes about helpers to help-seeking judgement, preferences, and behavior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1264-1275.
- Borland, D. C. (1978). Research on Middle Age: An Assessment. *The Gerontologist*, 18(4), 379-386.
- Casas, J. M. (1984). Policy, training, and research in counseling psychology: Theracial/ethnic minority perspective. In S. D. Brown & R. W. Lent (Eds.), *Hand 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pp. 785-832). New York:

- Wiley.
- Chen, G. M. (1993). Self-disclosure and Asian students' abilities to cope with social difficulties in th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Psychology*, 127(6), 603-610.
- Corbett, K. (2009). *Boyhoods: Rethinking Masculinity* (pp. 173-207).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Cournoyer, R. J., & Mahalik, J. K. (1995). Cross-sectional study of gender role conflict examining college-aged and middle-age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11-19.
- Datan, N. (1982). Midas and other mid-life crisis. In K. W. Shaie & J. Geiwits (Eds.) *Reading in adult development and aging*. Boston: Brown & Company.
- David, R., & Katherine, K. (2014). 발달심리학.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 9<sup>th</sup>ed.] (송길연, 장유경, 이지연, 정윤경 공역). 서울: 박영story.
- Erikson, E. H. (1963). *Identity: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Fischer, E. H., & Farina, A. (1995).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A shortened form and considerations for research.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6, 368-373.
- Fischer, E. H., & Turner, J. I. (1970). Orientations to seeking professional help: Development and research utility of an attitude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5(1), 79-90.
- Helgeson, V. S. (2012). *The psychology of gender*(4th ed.). New Jersey: Pearson Education, Inc.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 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Press.
- Hof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Hill.
- Hui, C. H. (1988). Measurement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Journal of*

- Research on Personality*, 22, 17-36.
- Jung, C. G. (1954).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New York: Princeton Univ. Press (originally published in 1934).
- Kessler, R. C., Chiu, W. T., Demler, O., & Walters, E. E. (2005). Prevalence, severity, and comorbidity of 12-month DSM-IV disorder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replic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2(6), 617-627.
- Kushner, M. G., & Sher, K. J. (1991). The relation of treatment fearfulness and psychological service utilization: An overview.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2(3), 196-203.
- Levinson, D. J. (1996).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The seasons of a man's life*]. (김애순 옮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원전은 1978년에 출판)
- Nadler, A. (1986). Self-esteem and the seeking and receiving of help: Theoret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s. In B. Maher & W. Maher (Eds.) *Progress in experimental personality research* (pp. 115-163). New York: Academic Press.
- Nam, S. K., Choi, S. I., & Lee, S. M. (2015). Effects of stigma-reducing conditions on intention to seek psychological help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with anxious ambivalent attachment. *Psychological Services*, 12(2), 167-176.
- Nam, S. K., Choi, S. I., Lee, J. H., Lee, M. K., Kim, A. R., & Lee, S. M. (2013). Psychological factors in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A meta-analysi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44(1), 37-45.
- O'Neil, J. M. (1981). Male sex-role conflicts, sexism, and masculinity: Psychological implications for men, women, and the counseling psychologist. *The Counseling Psychologist*, 9(2), 61-80.
- O'Neil, J. M. (2008). Summarizing 25 years of research on men gender role conflict using the gender role conflict scale: New research paradigms

- and clinical implica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6(3), 358-445.
- O'Neil, J. M., Helms, B. J., Gable, R. K., David, L., & Wrightsman, L. S. (1986). Gender-Role Conflict Scale: College men's fear of femininity. *Sex Roles*, 14(5), 335-350.
- Pleck, J. H.(1995). The gender role strain paradigm: An update. In R. F. Levant & W. S. Pollack (Eds.), *A new psychology of men* (pp. 11-32). New York: Basic Books.
- Shepard, D. S. (2002). A negative state of mind: patterns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men with high gender role conflict. *Psychology of Men and Masculinity*, 3(1), 3-8.
- Tata, S. P., & Leong, F. T. L. (1994). Individualism-collectivism, social-network orientation, and acculturation as predictors of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among Chinese America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280-287.
- Triandis, H.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Press.
- Vogel, D. L., & Wester., S. R. (2003). To seek help or not to seek help: The risks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3), 351.
- Warren, L. W. (1983). Male intolerance of depression: A review with implications for psychotherapy. *Clinical Psychology Review*, 3, 147-15
- Yoo, S. K. (1997). *Individualism-collectivism, attribution styles of mental illness, depression symptomatology,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ns and America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USA.

## 부 록

부록 1. 설문지 안내문

부록 2. 인구통계학적 질문지

부록 3. 한국어 성역할 갈등 척도(Korean Gender Role Conflict Scale: K-GRCS)

부록 4. 문화가치관

부록 5.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척도(The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cale-Shorten Version: ATSPPH-S)

## 부록 1. 설문지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참여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중년남성들이 상담 및 심리치료에 도움을 추구하는 태도와 문화가치관, 성역할 갈등이 어떤 관계인지를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설문지에 담긴 질문에는 옳고 그름이 없으며 평소 자신의 생각과 가까운 답에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에 응답해주신 소중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의 신상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 12.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석사과정

지도교수: 서 명 석

엄 소 용

연구자: 고 태 영

010-9487-0309

sjkty@naver.com

부록 2. 인구통계학적 질문지

☆.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올해 연령 몇 세입니까?  
① 40세~44세    ② 45세~49세    ③ 50세~54세    ④ 55세~59세
  
2.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은 어느 곳입니까?  
① 서울·경기·인천 지역    ② 부산·대구·울산·경상도 지역  
③ 광주·전라도 지역    ④ 대전·충청도 지역  
⑤ 강원지역    ⑥ 제주지역
  
3.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졸    ③ 대학교졸    ④ 대학원졸
  
4. 귀하는 어떤 일에 종사 하십니까?  
① 회사원    ② 공무원 및 유관기관    ③ 전문직    ④ 개인사업    ⑤ 기타(    )
  
5. 귀하의 한 달 평균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6. 귀하가 정신적으로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① 가족 또는 친족    ② 친구 또는 선후배  
③ 종교    ④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  
⑤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⑥ 기타(    )
  
7. 귀하가 평소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① 운동    ② 미디어 또는 온라인 매체  
③ 술자리    ④ 동호회 활동  
⑤ 기타(    )



부록 3. 한국어 성역할갈등 척도(Korean Gender Role Conflict Scale:K-GRCS)

No	내용	전혀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일에서 출세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일이다.	1	2	3	4	5
2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들을 각별히 여긴다는 것을 말하기 힘들다.	1	2	3	4	5
3	다른 남자에 대한 나의 애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4	바쁜 일과와 나의 건강관리 사이에서 갈등을 느낀다.	1	2	3	4	5
5	돈을 버는 것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의 일부이다.	1	2	3	4	5
6	나는 강렬한 감정을 이해하기 힘들다.	1	2	3	4	5
7	다른 남자와의 애정은 나를 긴장시킨다.	1	2	3	4	5
8	나는 때때로 직업적 성공으로 나의 가치를 정의한다.	1	2	3	4	5
9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남들에게 약점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진다.	1	2	3	4	5
10	다른 남자에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1	2	3	4	5
11	나의 일이나 학업이 나의 여가시간이나 가족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12	나는 다른 사람의 성취수준과 성공수준으로 그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한다.	1	2	3	4	5
13	성관계 중에 나의 감정이나 느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14	나는 실패에 대해 걱정하고, 내가 남자로 잘 살아가는 데 실패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걱정한다.	1	2	3	4	5
15	내 짝에게 나의 감정적인 욕구를 표현하기 어렵다.	1	2	3	4	5
16	다른 남자를 만지는 남자를 보면 불쾌하다.	1	2	3	4	5

No	내용	전혀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7	폭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어렵다.	1	2	3	4	5
18	항상 잘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1	2	3	4	5
19	나는 섬세한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1	2	3	4	5
20	다른 남자를 알아 주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21	나는 자주 주변 사람들을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22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강한 성적 감정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1	2	3	4	5
23	다른 사람과 경정을 하는 것이 성공에 이르는 최선의 방법이다.	1	2	3	4	5
24	남을 이기는 것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잣대이다.	1	2	3	4	5
25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를 찾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다.	1	2	3	4	5
26	나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염려되어 남자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을 주저한다.	1	2	3	4	5
27	일이나 공부 때문에 여가시간이나 가족들과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	1	2	3	4	5
28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	1	2	3	4	5
29	나는 남에게 나의 감정을 보이고 싶지 않다.	1	2	3	4	5
30	성관계 도중에 내가 상대방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말하는 것을 어렵다.	1	2	3	4	5
31	나의 일이나 학업이 종종 내 생활의 다른 영역들(가정, 가족, 건강, 여가)를 방해한다.	1	2	3	4	5
32	학교나 직장에서의 나의 성취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 자주 신경쓴다.	1	2	3	4	5
33	다른 남자와 사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불편한다.	1	2	3	4	5
34	다른 남자들보다 더 똑똑하고 육체적으로도 강인해지는 것이 내게 중요하다.	1	2	3	4	5
35	나에게 지나치게 친절한 남자를 보면 그의 성적선호(이성애, 동성애)가 의심된다.	1	2	3	4	5
36	일이나 공부에 대한 성취욕구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힘들다.	1	2	3	4	5
37	나는 다른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느낄 때 기분이 좋다.	1	2	3	4	5

부록4. 문화가치관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	1	2	3	4	5
2	어느 경쟁에서나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	2	3	4	5
3	내가 속한 집단을 위해 나의 이익을 양보한다.	1	2	3	4	5
4	다른 사람들 보다 어떤 일을 못한다면 기분이 언짢다.	1	2	3	4	5
5	내가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1	2	3	4	5
6	내가 매사에 다른 사람들 보다 더 잘해야 한다.	1	2	3	4	5
7	나는 이웃과 사소한 것도 나누는 것을 즐긴다.	1	2	3	4	5
8	격렬한 경쟁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즐긴다.	1	2	3	4	5
9	나의 동료가 잘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1	2	3	4	5
10	나는 내 방식대로 산다.	1	2	3	4	5
11	만일 친인척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나는 능력이 되는데 까지 도와줄 것이다.	1	2	3	4	5
12	경쟁은 삶의 원천이다.	1	2	3	4	5
13	만일 동료가 상을 탄다면 나도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1	2	3	4	5
14	나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1	2	3	4	5
15	나의 즐거움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1	2	3	4	5
16	다른 사람들이 나 보다 좋은 성과를 얻었을 때 나는 자극 받아 더 노력하게 된다.	1	2	3	4	5
17	아이들은 자기 할 일을 먼저 한 다음에 놀아야 한다.	1	2	3	4	5
18	경쟁없이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없다.	1	2	3	4	5
19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같이 할 때 기분이 좋다.	1	2	3	4	5
20	어떤 사람들은 이기는 것을 중요시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1	2	3	4	5
21	내가 속한 집단들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1	2	3	4	5
22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나에게 의존한다.	1	2	3	4	5
23	가족들은 어떠한 희생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서로 단결해야 한다.	1	2	3	4	5
24	다른 사람들을 믿기보다는 나 자신을 믿는다.	1	2	3	4	5
25	부모님들과 자식들은 가능한 함께 살아야 한다.	1	2	3	4	5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26	다른 사람과 달리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1	2	3	4	5
27	내가 원하는 것을 희생해서라도 나의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1	2	3	4	5
28	나는 내가 하나의 인격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1	2	3	4	5
29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의 대다수의 의견을 존중한다.	1	2	3	4	5
30	나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특한 사람이다.	1	2	3	4	5
31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친한 친구의 의견과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1	2	3	4	5
32	나는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1	2	3	4	5

부록 5.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척도(The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cale-Shorten Version: ATSPPH-S)

No	내 용	전혀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만약 정신적으로 붕괴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나는 우선 전문적 도움을 구할 것이다.	1	2	3	4	5
2	자신의 문제를 상담자와의 논하는 것은 정서적인 갈등을 해결하는데 썩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1	2	3	4	5
3	만약 내가 현재 심각한 정서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면 상담으로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1	2	3	4	5
4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의 갈등이나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사람의 태도는 존경할만하다.	1	2	3	4	5
5	만약 내가 오랜기간동안 불안과 걱정으로 고통받았다면 상담과 같은 점누적인 도움을 구하겠다.	1	2	3	4	5
6	나는 언젠가 심리적인 문제로 상담을 받기를 원할지도 모른다.	1	2	3	4	5
7	정서적인 문제(예:우울, 불안, 분노 등)를 가진 사람은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5
8	상담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 볼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1	2	3	4	5
9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상담을 받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다.	1	2	3	4	5
10	다른것과 마찬가지로 정서적인 어려움도 저절로 해결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 A B S T R A C T

#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among Middle-aged Men's Cultural Values, Gender Role Conflict, and Help-seeking Attitude toward Professional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Tae-Yung Ko

Major in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Myoung-Seok Seo, Ph. D

&

Professor Soyong Eom, Ph. D.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middle-aged men's gender role conflict, cultural values, and psychological help-seeking attitudes, since this population seek mental health services, since previous studies have found that these men tend not to seek mental health services, such as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when experiencing psychological discomfort.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122 people, and statistical analysis, including frequency analysis, one-way batch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data collected from 120 participan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ignificant differences emerged in help-seeking attitudes among different occupational groups. Participants working in government offices and related institutions showed higher help-seeking attitudes than those in private businesses and other jobs. However,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help-seeking attitudes according to any othe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cond,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vertical group factors and horizontal individual factors as sub-variants of cultural values, and the factor of openness as a sub-variant of middle-aged men's professional help-seeking attitudes. Third, among the sub-variants of gender role conflict, professional help-seeking attitudes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with desirability value and emotional inhibition. Fourth, among the sub-variants of gender role conflict, success, power, and competition were shown to have positive correlations with vertical individual, vertical group, horizontal group, and horizontal individual factors in terms of cultural values, respectively. Finally, the clinical implication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middle-aged men, cultural values, gender role conflict, help-seeking attitude, counseling, psychological therapy**